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토크

02





안산을 찾아서 ㉔ 팔곡리 향나무

경기도 기념물 제31호, 수형(樹形)이 아름답고, 수세(樹勢)가 왕성한 향나무로 높이는 9m, 가슴 높이의 줄기둘레는 3m에 이르는 거목이다. 수령은 600살 정도로 고려 말기에 심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나무는 본래 키가 23m, 가슴 높이 줄기둘레가 3m 이상까지 자라는 상록수(常綠樹)로 가지가 위아래로 뻗는 특징이 있다. 잎은 비늘모양인 것과 비늘모양인 것이 있는데 7~8년생 이상의 것은 주로 비늘모양의 잎이 달리며 맹아(萌芽)에서는 비늘모양의 잎이 돌아난다.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59-3 ㉔

contents

- 04 특집 ① | 국제안전도시 공인
- 06 특집 ②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 08 생생도시 안산 | 안산시 소식
- 10 기획 ① | 안산 땅이름 이야기
상록구 사동
- 12 기획 ② | 안산에 가보고 싶다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 14 기획 ③ | 기업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
기업탐방 (주)비츠로넥스텍
- 16 특특 명예기자가 간다
- 22 출동! SNS시민기자 | 생생 마을기자단, SNS시민기자단 등
- 23 이달의 인물 | 안산시 얼굴, 박연숙 안산시민원콜센터 상담사
- 24 의회소식 | 안산시의회
- 26 우리동네 | 상록구와 단원구
- 28 안산 생생 맛집 | 안산시 13개 음식거리
- 30 참여마당 | 독자투고, 나비잠
- 32 알림마당 | 이달의 책, 문화소식
- 35 2월 독자 퀴즈, 일자리 정보



Vol.498

coverstory 안산 썰매장

아이와 함께 안산 눈썰매장을 찾은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산 썰매장은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물 썰매장으로 계절마다 탈바꿈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안산 대표 놀이 명소가 자리 잡았다. 코로 나19로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친구, 가족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안산 눈썰매장은 오는 2월 20일까지 운영한다.

사진 ● 안산시

발행일 2022년 1월 27일
발행인 안산시장 윤화섭
발행처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 대변인
e-안산톡톡 www.ansantalktalk.net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E-mail ansannews@korea.kr
홈페이지 안산시홈페이지 ▶ 안산소개 ▶ 시청소식지 <안산톡톡> 무료신청

@ansancity3 안산시청
@ansancity cityansan
ansancity 안산시유튜브
ansancity

안산톡톡을 매월 모바일로 받아보는 방법
① 카카오톡 친구 '안산시청' 검색
②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클릭
③ 완료



스마트 폰으로도
<안산 톡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산,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고, 범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다

안산시 시민안전과 031-481-2427

안산시는 올해 국제안전도시로 거듭났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유관기관, 민간단체, 시민 등이 수년간 노력한 끝에 맺은 결실이다. 안산시는 앞으로 안전증진사업 발굴과 개선, 보완 등을 통해 각종 사고와 범죄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 ‘우뚛’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식을 열어 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했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사고나 손상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국제안전도시시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er-ISCCC)가 인증하며 안산시가 받은 이번 공인은 국제적으로 430번째이자 국내에서 24번째, 경기도 내에서 5번째다. 안산시는 인증 기간인 5년이 도래하면 2026년 재인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완료’

안산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지난해 8월 18~19일과 11월 17~1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1·2차 현지실사에서 해외평가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했다. 특히 2차 현지실사는 스웨덴 굴브란드 쉰베르크(Guldbrand Skjonberg)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 사무총장 등 공인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산시는 이날 총괄보고로 ▲손상감시체계 ▲범죄 ▲자살 ▲교통 ▲산업 ▲재난 ▲고위험 등 총 8개 분야와 지역안전수준진단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전도시사업 기반 내용 등을 발표했다. 안산시는 그동안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안산상록·단원경찰서, 안산소방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산시자살예방센터 등 22개 유관기관과 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안전 거버넌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안전도시 7대 공인기준에 따른 안전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안전도시’ 브랜드 가치 높여

안산시는 2013년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해 국제안전도시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안전도시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산하 5개 분과를 통해 분과별로 ▲자살예방 ▲범죄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산업안전 등 분야에서 200여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안산시는 앞으로 지역사회 손상 예방, 안전수준 향상 등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증진사업을 펼쳐 안전도시 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안전도시 한국네트워크기관인 아주대, 협성대와 업무협약을 맺어 매년 지역사회 손상 관련 행정통계 분석과 손상통계 기반 정책자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안산시 미래의 투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확대’, 미래를 위한 마중물

안산시 교육청 소년과 031-481-3453

안산시는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한 학기당 100만원 한도에서 대학생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안산시 거주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육성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이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은 국가, 대학교 및 직장에서 받은 학자금 지원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안산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9년 4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을 처음 발표한 후 2020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 거주 대학생인 청년들이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과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은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채기고 살핀다는 점에서 촘촘한 교육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지속 ‘확대’

안산시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행 첫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1단계 대상별 지원을 시작으로 재정 여건에 맞춰 점차 지원 규모를 늘려왔다. 시행 1년차인 2020년도에는 지원 대상 2천538명에게 15억8천739만9천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1단계에서 2, 3단계로 확대했다. 2021년도 1학기 지원 대상의 경우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 등 2단계로 지원 대상이 늘어나 총 1천949명에게 11억4천761만5천원을 지급했다. 이어 2021년 2학기에는 지원 대상을 3단계인 소득 하위 6분위로도 확대하면서 총 2천67명에게 14억4천40만원을 지원했다. 대상별로 최대 100만원, 평균 69만6천여원이 지급됐으며 같은 해 1학과와 비교하면 지원 대상은 6%, 지원금은 16% 증가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을 시행한 이후 2년간 총 6천명 이상의 대학생 청년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었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다자녀가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소득 하위 6분위 가정’의 대학생이다. 소득 하위 1~6분위는 한국



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분위 1(저소득)~10(고소득) 기준을 준용한다. 만 29세 이하 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 기준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1인 이상이 함께 공고일 및 지원일 기준으로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학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와 동일하고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학교는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지원 대상자는 전체 등록금 중에서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등록금 중 장학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의 50%, 학기당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안산인재육성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4단계까지 지원 확대 '협의 중'

안산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3단계까지 예산에 맞춰 시행 중이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안산시 대학생 전체 인원인 4단계까지로 지원 대상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이 안산시민으로서 혜택을 받게 되면 청년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소식 1

안산시, '고려대 안산캠퍼스(가칭) 교육인프라 구축' 협약 체결



안산시가 고려대학교와 손잡고 지난 1월 7일 의과대학 교육 시설과 최첨단 암병원 설치 계획이 담긴 '고려대 안산캠퍼스(가칭)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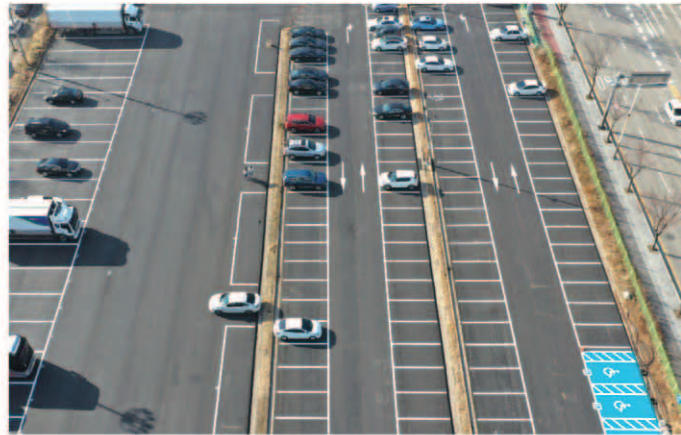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처하고 교육·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우수한 연구 및 의료진을 유치해 안산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양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고려대는 안산시에 의과대학·간호대학 학생을 위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시설을 조성하고 암, 희귀난치병 진료를 위한 최첨단 암병원 구축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이러한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안산시 신성장전략과 031-481-3435

소식 2

차고지 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 연장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3년 연속 차고지 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한다. 안산시는 2020년 차고지 4개소, 207면에 대해 3천7백여만원을 감면한 데 이어 작년 9개소, 367면에 대해 1억4천5백여만원의 요금을 감면했다. 올해는 9개소, 367면에 대한 감면액이 1억5천7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감면 사항은 ▲화물자동차 월 3만5천원~4만5천원 ▲승합자동차 월 4만원~4만5천원 등이다. 신청 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감면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 교통정책과 031-481-2974



안산시, 2021년 자치분권어워드 '은상' 수상



안산시가 지난 1월 19일 열린 '2021년 자치분권어워드 시상식'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담아낸 '온-가족 이음 프로젝트'로 '은상'을 수상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대학, 16개 지역 MBC가 공동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전국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자치분권의 토대를 쌓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는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1차 서류심사와 전문가, 국민참여단이 참여한 2차 심사로 진행됐다.

온-가족 이음 프로젝트는 ▲태아를 위한 품안애(愛) 상해 안심보험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국 최초 복지정책이 총망라된 '종합 선물세트'라는 평을 받으며 시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는 생애주기 전환기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안산시 기획예산과 031-481-2802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산시가 오는 2월부터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보상을 하는 제도다. 오는 11월까지 추진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크기마다 지급단가가 다르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개인 스마트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불가능하다.

상록구 생활안전과 031-481-5583

단원구 생활안전과 031-481-6353



안산 땅이름 이야기⑨ 상록구 사동



고슬봉
달봉재

사동(四洞)은 법정동 이름이며 행정동으로 사동, 사이동, 해양동이 속해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廣州郡) 성곶면(聲串面) 삼리(三里)와 사리(四里)였다가 칙령 제98호에 따라 1906년 9월 24일 안산군(安山郡)에 편입됐으며 1912년 2월 5일 '사리'로 통합됐다. 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 사리가 속한 성곶면이 수원군(水原郡)으로 이관되었고 곧이어 4월 1일 성곶면이 북방면·월곡면과 함께 반월면(半月面)으로 통합, 개칭되어 수원군 반월면 사리가 되었다. 이후 1949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따라 화성군(華城郡) 반월면 사리가 되었다가 법률 제3798호에 따라 1986년 1월 1일 안산시(安山市) 사동(四洞)이 되었다. 사동은 신도시 개발 전에는 화성군 양감면 면장보다 사리 이장을 한다고 할 만큼 화성군 관내에서는 이(里)면적이 제일 컸다고 한다. 사동은 조선시대에는 남양과 안산 지방에서 '주더(다)리'라 칭했고 사동의 집성 성씨인 양주최씨를 '주더리 최씨'라고 불렀다. 현재는 대부분 지역이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학교(대학교)부지로 조성되었으며 사리포구는 안산호수공원 등으로 변모했다.

이현우 향토사전문위원(안산문화원)

분대(粉垓) 흙이 부드럽고 고와서 분대라 불렀다고 한다. 최훈의 3남인 최홍주(崔弘澍)와 4남인 최홍개(崔弘溉)가 이곳으로 분가해 마을을 이뤘는데 특히 승지공파인 최홍개의 후손들이 세거했다. 삼밭과 향가울 사이에 있던 분대는 1979년 폐동 때 19호가 있었으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주택지로 변모됐다. 마을에서는 삼밭 뒤에 있는 고슬봉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16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달봉재 '달 보는 산'이라는 뜻이며 예전의 삼리(三里) 지역으로 현재 석호초등·중학교 뒷산이다. 산 정상에 봉화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기도 하고 연안봉수(沿岸烽燧)나 *수루(戍樓)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출토되는 기와조각과 그릇조각 등으로 보아 마을 제당(祭堂)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적군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성 위에 지은 망



초당(草堂) 감자골과 긴곶 사이에 있던 마을이다. 최혼의 3남 최홍주가 휴암산(부영재산) 중턱에 초당(草堂)을 지어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한 이후 마을 이름도 초당이 되었다. 학교가 들어서 1996년 장화초등학교로 개교했다가 1997년 양주최씨들의 건의로 초당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감자골(柿竹谷) 감나무와 대나무가 많아 감대골이라고 불렸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감자골로 변음 됐다. 신도시 개발 후 현재는 감골(柿谷)이라고 불리고 있다. 양주최씨 집성촌이었던 곳으로 최혼 선생을 비롯한 양주최씨 묘역은 안산시 향토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사리포구(四里浦口) 광복 이전 칠당굴과 잠목 등이 우거진 곳이었으나 방조제 축조 후 인부들의 사택을 위한 민가가 신축되면서 취락이 형성됐다. 사리포구는 1950년 9·28수복 후 대림산업이 방조제 축조를 시작해 성포동 성머리포구가 이곳으로 옮겨지고 성머리 어민 일부가 이곳에서 어업활동을 계속하자 점차 어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신도시 건설에 따라 현재 호수공원과 도로로 변모했다.

항가울(杭湖) 이곳에 처음으로 취락이 형성되었을 때에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이웃 마을과 왕래를 하려면 배를 이용했다고 해 '항가울(杭湖)' 또는 '항갈'이라 불렀다고 한다. 최혼의 3남 최홍주의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1979년 폐동 때에는 24호가 살았으나 신도시 개발로 해안도로가 조성됐다.



감자골 양주최씨 묘역
당시 사리포구 모습
항갈







‘안산’에 가보고 싶다 : 바다향기수목원

2022년 안산은 가보고 싶은 도시로서 매력 발산에 나선다. ‘2020~2021 안산 방문의 해’에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대부도를 중심으로 힐링할 수 있는 안산 9경(景)뿐 아니라 안산 곳곳 숨어 있는 보물 같은 장소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볼거리 가득한 안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바다향기수목원,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 휴양 공간

대부도 선감도에 자리한 바다향기수목원은 속세를 떠나 선경에 살던 신선이 내려와 맑은 물로 목욕을 했다는 뜻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경기도는 2007년 도유림을 활용한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각종 기반 시설과 주제원 조성 등의 노력 끝에 2019년 5월 바다향기수목원을 정식 개원했다. 현재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우리나라 중부 도서 해안 식물을 중심으로 약 1천여 종류 30여만 그루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 식물 유전자원 보존은 물론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서해안 최고 산림 휴양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 총 면적은 30만평(101만㎡)이며 서해안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상상전망대’를 비롯해 바다너울원, 암석원, 장미원 등 특색 있는 테마의 주제원이 자리하고 있다. 또 백합쉼터와 소공연장 등 다양한 휴양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용안내

관람시간

봄·가을 9~18시(입장마감 17시)

여름(6~8월) 9~19시(입장마감 18시)

겨울(11~2월) 9~17시(입장마감 16시)

휴원일 1월 1일, 설날, 매주 월요일

입장료

무료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399 일원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바다향기수목원 031-8008-6795





기업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



(주)비츠로넥스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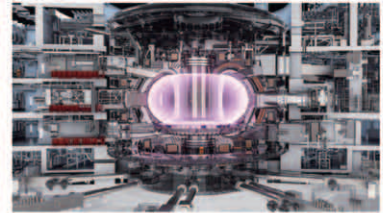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
자료제공 ● 안산상공회의소

안산시는 2021년 6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안산기업통합지원단'을 공식 출범했다. '기업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는 신념으로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안산시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주요 기업을 소개한다.

(주)비츠로넥스텍,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다

성곡동에 자리한 (주)비츠로넥스텍은 2016년 설립된 거대과학 응용 기술 전문기업이다. 국내 최초 액체로켓엔진 제작기술을 개발해 상세설계와 제작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매출액만 640억 원에 이르며 직원 수는 200명이 넘는다. (주)비츠로넥스텍의 주요 활동 분야는 국가 거대과학과 환경이다. 거대과학이란 과학자, 기술자, 연구기관, 예산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과학 연구를 말한다. (주)비츠로넥스텍은 이 분야에서 한국형 발사체와 차세대 에너지원 KSATR,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초전도 가속기(양성자, 중이온, 방사광)사업 등의 설계와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21일 발사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국내 대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주)비츠로빅스텍이다. 우주항공, 플라즈마, 가속기 등 특수사업 분야를 담당하는 (주)비츠로빅스텍은 누리호 엔진의 연소기를 개발, 제작하는 등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증명한 바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음식물 감량기와 고온플라즈마 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자원화, 응용사업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녹색 성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 에너지원과 국가 기초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비츠로빅스텍의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주)비츠로빅스텍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거대 공공과학 분야에 집중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신규 사업을 통해 단단한 사업구조를 구축, 성장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가치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주)비츠로빅스텍 관계자는 "사업 특성상 여러 제약이 있는데 단순한 제품 생산 회사가 아니어서 환경, 건설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증과 인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을 할 것이며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기업,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비츠로빅스텍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 ‘본오아이사랑놀이터’ 개관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9

본오아이사랑놀이터 031-415-227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www.ansanbo6.or.kr>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지난해 12월 문을 연 본오아이사랑놀이터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상록구 산우물공원에 조성된 본오아이사랑놀이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아이사랑놀이터(구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이다.

이용대상은 영·유아(6개월~만5세)와 보호자 등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시설로는 1층 장난감 도서관, 2층 까르르 놀이터, 상담실, 시간제 보육실 등이 갖춰져 있다.

1층 장난감 도서관은 3개월 장기 대여물품인 육아용품 하이체어와 범보의자, 돌상과 백일상, 영·유아 발달에 맞는 블록(쌓기), 음률(악기), 역할놀이, 신체(발육), 탈것 완구, 조작(감각), 언어 등 880여 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다. 연회비 1만 원에 대형 장난감 3점, 도서 5점 등 총 8점을 대여할 수 있다. 2층 까르르 놀이터는 영·유아 체험실로 신체 놀이터와 미로 공간, 레고방, VR존 등으로 구성됐다.

아이와 함께 놀이터를 방문한 한 보호자(사동 거주)는 “가까운 곳에서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너무 좋다”면서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





려한 장난감과 신체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만족도가 높다. 주변 엄마들에게 소개해 줘야겠다”고 말했다.

까르르놀이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대여 가능한 장난감 품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유아와 보호자 이용 인원을 축소 운영할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본오아이사랑놀이터 관계자는 “본오동에 아이사랑놀이터가 생기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 가는데 한걸음 더 앞장서게 됐다”며 상록구 대표 놀이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육아와 보육의 중심축인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사랑놀이터 1호점은 단원구 광덕2로 249에 위치해 있다.



“첫 보름달이 뜨는 날엔 오곡밥과 나물을 맛있게”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설날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예로부터正月대보름은 작은 설날로 생각하
는 큰 명절이었지만 이제는 많이 퇴색해 절기음식을 챙기는
정도로 의미가 축소됐다. 그동안 열렸던正月대보름 행사도
2019년 이후 열리지 못했다. 올해正月대보름은 양력으로 2
월 15일이다.正月대보름에 하던 행사와 놀이를 알아보고 정
월대보름에 먹는 오곡밥과 나물을 소개한다.

正月대보름 아침에는 깍질이 단단한 잣과 호두, 땅콩 등을
깨무는데 이것을 '부럼 깨기'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1년 내
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다. 또 '귀밝이술'을 마시
고 밤에는 뒷동산에 올라가 새해 풍년을 점치고 행운을 비
는 '달맞이'를 하며 소원 성취를 빌고 1년 농사를 점치기도
했다. 이때 달빛이 희면 비가 많이 내리고 붉으면 가뭄이 들
며 달빛이 진하면 풍년이 오고 흐리면 흉년이 든다고 했다.
달집을 만들어 달이 떠오를 때에 태우면서 풍년을 비는 '달
집태우기'도 있다. 다리를 밟으면 다리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믿고 다리를 걷는 '다리밟기', 그해의 액운을 멀리 날려 보내
길 기원하는 '연날리기' 행사도 열렸다.

대보름날에는 부럼과 '귀밝이술' 외에도 검은콩, 팥, 찰수수,
차조 등 다섯 가지 곡물을 넣은 오곡밥과 호박고지, 가지, 시
래기 등 햇볕에 말린 묵은 나물을 먹었다. 묵은 나물 요리
역시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을 보충하기에
좋았을 것이다. 묵은 나물 요리의 경우 구하기 쉬운 호박고
지와 무말랭이, 말린 가지, 시래기, 취나물을 볶아 먹을 수
있다. 취나물과 시래기는 반나절 정도 불리고 호박, 가지, 무
말랭이는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불려둔다. 들기름이나 참
기름을 두르고 불린 가지와 호박, 무말랭이, 마늘, 국간장,
들깨가루를 넣어 볶는다. 취나물과 시래기는 볶기 전에 간
장과 마늘, 들기름을 넣고 밑간을 한 후에 식용유를 두른 팬
에서 볶다가 물 약간과 다진 대파, 들깨가루를 넣고 볶는다.
대보름날 먹는 음식과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正月대보름을
보내자.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소희 명예기자 estateksh@naver.com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안산 신길선사유적공원에 가면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당시 생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으로 적극 추천한다.

신길선사유적공원 안에는 신석기시대 주거 형태를 알 수 있는 여러 채의 움집과 움집 안에 생활상을 재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먹었던 곡식과 사냥, 채집하는 모습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신길선사유적지는 2002년 5월 신길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유물을 처음 발견했다. 이후 2005~2007년 고려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가 이뤄졌고 2010년 연구보존을 위해 역사유적공원으로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발견이다. 다수의 주거지가 화재로 소실된 것이어서 유구의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이러한 주거지들이 모여 있는 마을 유적은 중부지역에서는 암사동 이래 최대 신석기 유적이며 당시 생활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주거지 내부 시설로는 기둥을 세웠던 구멍과 불을 피운 화덕, 출입시설, 하수시설, 부뚜막식 화덕 등이 확인됐다. 다른 유물로는 신석기시대 서해안식 토기와 갈돌, 갈판, 시루, 단경호 등이 출토됐다. 이곳에서 발굴된 갈돌과 갈판 중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또 선부동에서 많이 발굴된 청동기시대 유적인 지석묘도 신길선사유적공원 안에 전시해 놓고 있어 청동기시대 유적도 함께 볼 수 있다. 선사시대 유물이 많이 발굴되어 역사와 학문적 가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원이다.

신길선사유적공원에서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작지만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네팔 작은 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14-1, 지하 ②

네팔 작은 도서관 www.5slibrary.com

송민아 명예기자 junseo1000@hanmail.net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원곡동 다문화거리에 최근 '네팔 작은 도서관'이 개관했다. 이름 그대로 작고 아담한 공간인 '네팔 작은 도서관'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어렵게 만든 공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

'네팔 작은 도서관'은 안산역 근처 네팔 이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너무 넓고 협소해 새로운 공간을 찾다가 임대료 문제로 오랫동안 비워져있던 지하 공간에 새롭게 마련했다. 주말마다 네팔 이주민 회원들이 모여 쓰레기를 치우고 낡은 시멘트를 걷어내 칠을 하는 등 수리를 거쳐 아늑한 지하 공간을 깨끗하고 환한 지금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1천여 권에 달하는 네팔 책과 한국 책이 꽂힌 책장을 볼 수 있다. 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도실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다.

'네팔 작은 도서관'은 회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에만 운영한다. 평일에는 도서관 이용자가 모이기 어려워서다. 주말 도서관 운영 관리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서 안산에 오기

힘든 회원에게 희망 도서를 택배로 보내주기도 한다.

지난 주말 관리자로 있던 프랩 씨는 "가족과 떨어져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곳에서 일하다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은데 이곳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책을 읽으며 네팔 악기를 다루고 네팔 노래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 어디로든 택배를 보내는데 부산, 제주도까지 책을 보낸 적이 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친구가 다시 이곳으로 책을 보내온다"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서관 한쪽에 택배를 보내려고 포장해 둔 책들을 보여줬다. 책을 받을 주소가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한국어로 적혀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다.

'네팔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부족한 책을 지원받아 채워나갈 계획이다. 안산을 포함해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5만여 명이 넘는 현실에서 '네팔 작은 도서관'과 같이 다양한 문화가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안산 행복나눔 무료급식소와 함께 사랑을 전하는 방법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7길 17 ☎
 행복나눔 무료급식소 031-408-0453
 윤하정 명예기자 gkwjd01@naver.com

2004년부터 19년째 어르신들의 든든한 배를 지켜준 안산의 오랜 무료급식소가 있다. 바로 '행복나눔 무료급식소'다. 안산에서 19년간 장수하고 있는 행복나눔 무료급식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을 위한 밥을 짓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급식소를 운영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전 9~10시 사이 무료급식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급식소는 50여 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매일 3명씩 돌아가며 봉사를 하고 있다. 행복나눔 무료급식소는 매년 5월이 되면 어버이날 특식과 어르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한다. 또 10월이 되면 노인의 날 행사를 열고 1년에 한번 전체 봉사원이 모여 김장을 담근다. 맛있게 담근 김장김치는 어르신에게 10kg씩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설 명절에 맞춰 떡국 떡(1인당 3kg)을 드릴 계획이다. 이석권 행복나눔 무료급식소 대표이사는 "내가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지 못했던 관계로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대접하다보니 지금까지 운영하

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최근에 상황이 어려워져 급식소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노인들의 눈빛에 마음이 안쓰러워 도시락이라도 싸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자식이 있고 집도 있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는 독거노인들의 가장 힘든 점은 외로움"이라며 "자식이 외부나 외국에서 잘 살고 있지만 돌보지 않고 방치된 노인들이나 자식이 없고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지원되는 생계 급여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품어 주는 것이 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거노인이나 노숙인이 어떠한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 처했는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려면 사회가 따뜻함을 보여야 한다"며 "사람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 행복나눔 무료급식소 후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행복나눔 무료급식소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출동! [SNS시민기자]



#안산시민의 마음건강에는
로켓처방이 있어요!

윤지원 기자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원곡가치카운터〉

전지환 기자



#경기 시각예술 성과발표전
〈현시적 전경〉 관람기

박은선 기자



#겨울철 산책하기 좋은 곳
'안산 둔배미공원'

이금순 기자





“안산시에 관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산시 얼굴, 박연숙 안산시민원콜센터 상담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민원전화의 폭주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친절할 자세로 민원인을 응대한 안산시민원콜센터 소속 박연숙 상담사가 최근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상을 받았다. 이번 도지사상 수상은 안산시민원콜센터가 문을 연 2013년 이래 처음이다.

지난 1월 18일 안산시민원콜센터 회의실에서 만난 박연숙 상담사는 “다 함께 일하는 상담 업무 특성상 혼자만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지만 매우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년 365일 운영하는 안산시민원콜센터는 시민의 삶과 가까운 곳에 있는 친절할 이웃이자 민원 해결사로 최선을 다하는 ‘안산시 얼굴’이기도 하다. ‘안산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테마로 코로나19 사태에 들어서도 시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연숙 상담사는 이곳에서 8년 넘게 일하고 있는 베테랑 상담사다.

그는 시정과 관련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전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 시정 이슈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차량등록, 도서관, 보건소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민원을 매뉴얼에 따라 안내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전체 업무 중 80%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원이다.

박 상담사는 “지원금 안내나 코로나 검사 결과, 예방접종 예약 변경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반복적인 민원이 많아지고 기존 민원 상담 업무는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안산시민원콜센터 상담사 1명이 처리하는 민원 전화는 하루 평균 130건에 달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발표 시기에는 하루 평균 150건이 넘기도 했다. 코로

나19 발생 전인 2019년 하루 평균 70~8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안산시민원콜센터 역할도 생활 밀착형으로 바뀌면서 이들의 업무 역량도 강화되고 다양해졌다. 박 상담사는 “최근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주요 길 안내나 버스노선 문의, 관광지나 맛집 추천 등 생활밀착형 문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박 상담사는 3~4년 전쯤 할머니 한분을 안내한 일이 상담사로써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했다.

그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 주시는 할머니를 통해 상담일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안내자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상담사는 마지막으로 ‘상담은 자신의 천직’이라면서 열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하고 싶은 전화는 누구나 있지만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이고 피하고자 하면 핑계가 보인다’는 말처럼 열려있는 태도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힘든 일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과 업무를 믿고 맡겨 주는 관리자 분들이 있어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노동 환경이 삭막해지고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민원콜센터(1666-1234)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그 외 시간에는 시 당직실로 연결된다.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안산시의회는 지난 1월 21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총 11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통과됐다. 다만 기획행정이 제안한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부결 처리됐다.

아울러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4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고 도시환경위원회의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안대로 의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공통 안건으로 심사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집행부 안에서 토지 매각 사업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 의결했다.





안산 청소년의회 우수 안건 제안... 청소년의원 6명 선정

안산시의회는 지난 1월 12일 '2021 안산 청소년의회 우수 안건 시상식'을 열어 안산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수 안건을 제안한 청소년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박은경 의장과 의회사무국장, 청소년의회 의원 수상자 6명 등이 참석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청소년의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8건의 정책 제안 발표 및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최우수 안건에 '안산시 내 공유 전동 모빌리티 이용 및 주차 관련 조례안'(임명우/상록중)이 선정됐다. 시민을 대상으로 전동 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 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시의성과 실효성에서 높게 평가됐다. 또 우수 안건으로 '안산시 주택가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확대에 대한 조례안'(이수현/본오중)과 '안산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나상빈/고잔고)을, 장려 안건으로는 '안산시 환경교육의 정규과목 의무화에 대한 조례안'(이지수/단원고), '안산시 고등학생에 대한 투표권 관련 교육에 대한 조례안'(정재우/경안고), '안산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위대한/본오중) 등을 뽑았다.

박은경 의장은 "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익힌 경험들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매년 안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 청소년의 민주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안산 청소년의회를 운영 중이다.



소설 '상록수' 무대 /

‘상록구’



성포동 성포고등학교 학생들 축제 상품으로 ‘이웃돕기 쌀’ 기부

성포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6일 성포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절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쌀(10kg) 14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참여 학생들은 최근 비대면으로 열린 제9회 다담제 축제에서 받은 상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에 쓰기로 마음을 모으면서 이번 기부가 이뤄졌다. 이들이 전달한 이웃돕기 쌀은 지역 내 홀몸어르신가구와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김진만 성포동장은 “미래 희망인 청소년이 지역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본오3동 아-민음치과, 적십자 특별회비 ‘1백만원’ 기탁

본오3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본오3동 소재 아-민음치과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 1백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아-민음치과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치아건강관리와 심리·정서적 안정 등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홍정표 아-민음치과 대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약속하나마 힘을 보태드리고자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어려울수록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본오3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병구 본오3동장은 “많은 주민이 사랑 나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

‘단원구’



선부3동 태권도장 아토, 선부3동에 ‘사랑의 라면’ 후원

선부3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3일 선부3동에 위치한 태권도장 아토로부터 ‘사랑의 라면’ 8박스(500개)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태권도장 아토는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수련생들의 자율기부를 통해 이번 후원물품을 마련했다. ‘사랑의 라면’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어르신 등에게 전달됐다.

양지운 관장은 “수련생들이 자신이 먹을 간식을 아껴서 모은 라면을 소외된 주변 이웃에게 전달하게 되어 행복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중앙동 SSMA상승도장, 중앙동에 취약계층 위한 성금과 후원품 전달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12일 중앙동 소재 SSMA상승도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과 라면 23박스, 쌀 등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매년 꾸준한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 중인 SSMA상승도장은 엄영식 관장과 사범, 재원 중인 학생들이 직접 성금을 모아 이번 기부에 동참했다. 특히 라면 1봉지부터 1박스에 이르기까지 십시일반으로 후원품을 마련하며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에 함께 했다. 성금과 후원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엄영식 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따뜻한 정성을 전하고자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산 생생 맛집

안산에는 다양한 음식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들이 많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이 거주하는 원곡동은 다문화 음식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식당을 방문하면 본토 맛에 가까운 이색적인 요리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지 대부도의 음식특화거리와 다양한 테마 음식거리 등 안산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대표 음식거리를 소개한다.

#경기도 음식문화 시범거리

대부도 음식특화거리 ①

감칠맛 나는 바지락칼국수, 활어회, 조개구이 등 주 인기메뉴를 비롯해 간장게장, 바지락고추장찌개 등 향토음식 개발 메뉴도 있다. 또 메밀국수와 수타손짜장 등 다양한 메뉴로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과 식도락가를 즐겁게 한다.

다문화 음식거리 ②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안산 속의 작은 아시아로 2009년 경기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됐다. 외국인에게는 '고향의 맛'을 즐기며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장소로, 내국인에게는 이색적인 외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안산시테마음식거리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 맛거리 ③

바닷가재에서 회까지 해산물 종합 선물 세트를 맛볼 수 있다. 횃집은 물론 육회와 활전복, 생선회, 몽골리안 숯불 바비큐, 쪽갈비, 두루치기, 해물찜 등 다양한 메뉴를 한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어 무얼 먹지 할지 고민하게 된다.

7080로데오 맛거리 ④

수도권 전철 4호선 한대앞역에 내리면 도로 건너편으로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가득한 로데오 맛거리가 나온다. 친구와 가족, 직장인 할 것 없이 발길을 사로잡는 이곳에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다양한 퓨전 음식점과 선물집, 펍(PUB) 등을 즐길 수 있다.

25시 사릿골 ⑤

거리 이름도 '참치거리'인 이곳엔 참치 맛집이 즐비하다. 가장 싱싱하고 가장 맛있는 최상의 참치를 종류별, 부위별로 입맛에 따라 맛볼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참치 전문 셰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어 참치 마니아에게 최상의 장소로 꼽힌다.

송호맛길 ⑥

조선시대 어업의 전진기지였던 송호마을에는 한식, 중식, 양식 모두 다 있다. 산채정식부터 감자옹심이와 메밀막국수, 삼대를 잇는 두부요리, 굴 국밥, 동태탕, 추어탕 등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 거리다.



음식문화 시범거리(경기도)

- 1 대부도 음식특화거리
(우수외식업·농림축산식품부)
- 2 다문화 음식거리

테마 음식거리 (안산시)

- 3 다이아몬드광장 맛거리
- 4 7080 로데오 맛거리
- 5 25시 사릿골 거리
- 6 송호맛길

자연조성 음식거리

- 7 문화광장 맛거리
- 8 본오동 먹자골목
- 9 성포동 맛거리
- 10 중앙동 맛거리
- 11 중앙동 골창골목
- 12 한양대학길 맛거리
- 13 화정동 숲개마루 맛거리



#자연조성 음식거리

문화광장 맛거리 ⑦

축제와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광장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뒤편에 형성된 신흥 맛거리다. 해산물, 중국요리, 멕시코 음식은 물론 호프와 파스타, 최상급 참치 등 다양한 음식들이 모두 모여 있다.

본오동 먹자골목 ⑧

상록수역 1번 출구로 나와 '최용신 거리 조형물'을 따라가다 보면 '본오동 먹자골목'을 만날 수 있다. 세계맥주와 숯불고기는 기본이고 청국장과 곤드레 수제비 등 건강음식도 즐길 수 있다.

성포동 맛거리 ⑨

조선시대 포구가 있었던 장소로 해산물이 한 상 가득 차려진 어부한상 대형 음식점을 포함해 한정식, 고깃집, 생선구이집 등 다양한 음식점들이 위치해있다.

중앙동 맛거리 ⑩

화려한 거리 속에 숨은 맛집이 있다. 연어샐러드, 소고기 타다끼, 해물누룽지탕, 퓨전짬뽕 등 다양하고 맛있는 퓨전 메뉴들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특히 전국 각지 명품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막걸리 전문점도 있으니 막걸리 마니아에게 꼭 추천한다.

중앙동 곱창골목 ⑪

왕십리는 아니지만 안산 중앙동에도 '곱창골목'이 있다! 나름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단골도 많아서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곱창 한 접시로 하루의 피로를 날려 보자.

한양대학길 맛거리 ⑫

대학교 앞은 어디든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맛집이 즐비하다. 스크린 영화를 볼 수 있는 파스타집을 비롯해 저렴한 가격에 제육볶음과 김치찌개를 즐길 수 있는 밥집, 바쁜 학생들을 위한 간편한 도시락과 샌드위치집 등 가성비 높은 다양한 맛집이 자리하고 있다.

화정동쑥개마을 맛거리 ⑬

쑥개마을은 실개천 다리 위부터 시작된다. 누룽지 백숙, 간장게장, 아귀찜, 콩 요리, 추어탕, 시골밥상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고 모듬조개칼국수, 낙지마을 등 TV에 소개된 공인 맛집도 있다. 근처 꽃우물마을엔 한방오리, 장어, 소머리국밥, 메밀 전문점도 있으니 꼭 알아두자!





고향 가는 길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생일 핑계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서
그리운 고향길 달리다보니

그 옛날 어머니와 함께 살던
아련함이 나를 반기듯 그 자리 그대로

울 어머니 세상에 둘도 없는
유복자 아들 낳아
그 아들 손 어찌 놓고
눈 감으셨는지

딸만 줄줄이 낳아
아들 아들 한 맺힌 삶 사시다
아들 태어나기 열흘 전 돌아가신 아버지!
열흘만 더 사셨으면
그토록 원하던 아들 소식에
애달픔은 풀고 가셨을 텐데
그 아들 못 보고 애달픈 삶
마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뒤편까지
살아가시며
불면 꺼질까 행여 날아갈까
정안수 떠놓고 치성드리고
아들이 아플 때면
단숨에 끌어안고
맨발로 뛰어나가시던 그 모습
오직 아들에게 인생을 걸고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내셨으니
그 아들에게는
더없는 어머니 최고의 어머니

그 아들이 벌써 환갑이 훌쩍 넘어
고향으로 귀향해서 잘 살고 있으니
이제는 아들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아련한 옛 생각하며



안산 특특에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사연과 함께 연락처, 주소, 글과 관련된 사진을 ansannews@korea.kr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면 5만원 상당의 소정의 원고료를 다온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독자투고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분량 A4용지 1/2, 관련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 36개월 이내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150자 내외, 이기사진



나비잠 lovely baby



아기이름

장재이(여)

출생년월 2021년 10월

재이야 안녕! 엄마 아빠야~ 올해 재이가 엄마 아빠에게 선물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재이가 태어난 감격적인 순간을 잊을 수 없네. 재이가 태어나고 엄마 아빠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온가족이 재이 덕분에 웃음꽃이 피고 일상에 활력이 들고 있어. 재이가 웃어주면 이 세상이 재이의 예쁜 미소로 가득 차고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아. 부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씩씩하게 잘 자라자!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 재이 너무나 사랑해~

김미선 단원구 선부3동



아기이름

강채민(남)

출생년월 2021년 8월

결혼 5년 만에 기쁨으로 태어난 나의 손자 채민아, 태어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구나. 볼수록 사랑스럽고 날이 갈수록 예쁘게 자라나는 너를 보니 이런 마음을 다함없다 하는 거겠지. 친구들이 손자 손녀 사랑을 할 때마다 유난스럽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나도 은근히 우리 채민이 사랑을 하고 있더구나. 사랑하는 채민아, 항상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로 자라기를 할머니가 기도한다.

채민아 사랑해요.

양아림 단원구 선부1동



아기이름

최예라(여)

출생년월 2020년 3월

신생아 때부터 낯가림이 심해서 많이 울었는데... 엄마랑 단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좋은 사람들, 친구들도 만나면서 낯가림도 극복하고~ 벌써 어린이집 입소를 앞두고 있구나! 정말 감동이야♡ 지난 2년 동안 예라도 엄마도 훌쩍 큰 것 같아^^ 부족하지만 오늘보다 내일 더 예라를 사랑하는 엄마가 될게. 우리 딸, 사랑하고 축복해~~♡

박아셀 단원구 신길동





이달의 책

books of this month

이달의 주제 새해맞이 취미 개발



지능 개발 종이접기 200

저자 삼채문화 | 출판 은하수미디어
종이접기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10가지 주제, 200가지 종류의 종이접기를 통해 집중력, 관찰력, 공간 개념 등 8가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난이도와 개발 능력이 표기된 작품을 단계별로 골라 접어보며 미적 감각과 창의력을 길러보자!



글씨의 정석

저자 윤디자인그룹 | 출판 심아책방
악필 교정에서 손글씨 스타일링까지! 손글씨로 따라 쓰기 좋은 30가지를 엄선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나만의 손글씨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름다운 글씨를 만드는 규칙들을 따라하다 보면 매력적인 글씨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퇴근 후 홈카페

저자 유승아 | 출판 이담북스
카페에서 커피를 훌쩍이고 디저트를 즐기는 사색의 시간. 이제는 집에서 나만의 '소소한 홈카페'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이 책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하우스 전문 바리스타가 될 수 있다!



2022 안산의 책 (안산시민, 책으로 잇-다)



밝은 밤

“백년의 시간을
감싸 안으며
이어지는 사랑과
숨의 기록”
저자 최은영
출판 문학동네



시간을 건너는 집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손을 잡고
함께 온기를 나눌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거야”
저자 김하연
출판 특별한서재



긴긴밤

“수많은 긴긴밤을
함께 했으니
‘우리’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했다”
저자 루리
출판 문학동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중앙도서관 031-481-2703,
홈페이지 <https://lib.ansan.go.kr>

문화소식
artwork

경기도미술관_공연, 전시



2021 경기 시각예술 집중조명 프로젝트
〈광대하고 느리게〉

기간 '21.11.11.(목)~'22.2.27.(일)
장소 경기도미술관 전시실 1, 2
작가 권혜원, 박은태, 조은지
관람료 무료



조각음계

기간 '21.12.2.(목)~'22.3.20.(일)
장소 경기도미술관 1층 프로젝트 갤러리
장르 전시(아티스트 : 김채린 x 서혜민)
관람료 무료

안산문화재단_공연, 체험



미디어스테이지 <김홍도>

일시 1.20.(목) ~ 2.27.(일)
회차 1일 6회(10시, 11시, 13시30분, 14시30분, 15시30분, 16시30분)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내용 단원 김홍도의 삶과 그림의 미디어아트로의 재구성
관람료 1만원

드림베어 <WITH FRIEND>

일시 2.5.(토) 18시
장소 보노마루 소극장
관람료 무료

뉴하안뮤직아카데미

<제10회 뉴하안뮤직 정기연주회>

일시 2.26.(토) 15시, 19시
장소 보노마루 소극장
관람료 무료

안산문화재단_전시



<표암과 단원> 상설전시

기간 별도 기간 없음(월요일 휴관)
운영시간 10~18시(17시 입장마감)
장소 단원미술관 3관 2층
관람료 무료



생생화화 生生化化 안산

<현시적 전경: 들어내서 드러나는 것>

기간 '21.12.8.(수)~'22.2.27.(일)
(월요일 휴관)
운영시간 10~18시(17시 입장마감)
장소 단원미술관 1, 2관
관람료 2천원

※안산시민, 초·중·고등학생, 군인, 경찰 50% 할인
미취학아동, 65세 이상, 장애인 무료

*대관 공연 등 더 많은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문의전화
안산문화재단	www.ansanart.com	080-481-4000
경기도미술관	gmoma.ggcf.kr	031-481-7000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기간 2022. 1월 ~ 예산 소진 시

대상 안산시에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분

내용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지원

문의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3924)



2022년 안산시 주말농장 분양 안내

신청기간 2022.2.4.(금)~2.10.(목)

신청방법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nongeop.ansan.go.kr)
또는 등기우편

당첨발표 2022.2.17.(예정)

주말농장 사용료 1만4천600원

문의 안산시 농업기술지원과(031-481-3765)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2.1.27.(목)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지원기간 대상자 확정 후 2022년 12월 15일까지

신청자격 2021.1.1.이후 출산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구매금액의 80% 지원

지원한도 임신부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천원)

신청방법 (온라인)친환경농산물쇼핑몰

(www.ecoemail.com)

(오프라인)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안산시민원콜센터(1666-1234)



2022년 안산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및 참여자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2.1.13.(목)~2022.6.30.(목) ※ 선착순 마감

지원기간 공제 계약일로부터 1년간

지원대상 관내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공제 계약근로자 1명당 매월 기업납입금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온라인 접수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031-783-0615)



아름다운 노년을 행복하게 <안산실버대학>

운영시간 매주 화요일 14시

대상 65세 이상 누구나

참여방법 온라인 ZOOM (회의 ID : 882 8420 3288/암호 : 1234) / 유튜브 (검색창에 '안산실버대학' 검색)

내용 레크리에이션, 마인드강연, 특별공연 등

회비 무료

문의 안산실버대학(010-3596-4752, 010-9923-6613)





2월 독자 참여 퀴즈

〈안산특특〉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Quiz 1 지난해 12월 24일 개장한 안산○○장은 겨울에는 눈○○장, 여름에는 물○○장으로 계절마다 탈바꿈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안산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지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썰매 ② 롤러 ③ 스키

Quiz 2 속세를 떠나 선경에 살던 신선이 내려와 맑은 물로 목욕을 했다는 뜻에서 유래한 '바다○○수목원'은 우리나라 중부 도서 해안 식물 등 약 1천여 종류 30여만 그루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어 서해안 최고 산림 휴양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스멜 ② 향기 ③ 냄새



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엽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 주세요.
응모자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능)
*당첨자는 www.ansantalktalk.ne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모기간 2월 23일까지
1월 호 정답 ①, ②



안산시 일자리센터를 소개합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안내

- 운영시간 평일 9~18시
- 장소 안산시청 민원동 2층
- 이용대상 취업 희망 구직자
- 업무내용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 문의 031-481-2919

2021년 AI/VR 면접 체험관 이용 안내

- 운영시간 평일 9~18시(매주 목요일 미운영)
- 장소 안산시 스마트워크센터 AI 화상면접 체험관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 자택 등에서도 가능!
- 이용대상 안산시민 누구나(사전예약 필수)
- 신청방법 방문(전화) 또는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031-481-2277

「청년 취업 훈련 옷장」 면접 복장 무료 대여 사업

- 운영기간 2022. 1. ~ 예산 소진시
- 지원대상 안산시 거주 18~39세 청년
- 지원방법 (사)열린옷장 대여시스템 활용
※(사)열린옷장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13
- 지원내용 취업을 위한 면접용 정장 일체 무료 대여(1인 연 5회)
- 문의 031-481-2277



안산시 일자리센터가 '내 일(OBJ)'을 찾아드립니다

구분	행사명	행사규모	장소	문의
1주차(2/3)	설 명절 연휴 휴무			
2주차(2/10)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구인업체 3개/구직자 20명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화상면접장	031-481-2923
3주차(2/17)	안산919취업광장	구인업체 3개/구직자 20명		031-481-2919
4주차(2/24)	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안산919취업광장	구인업체 3~5개/구직자 20명		
수시	상설면접	업체 요청 시 수시 진행		031-481-2880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OBS 12월 26일
숨은보석같은 명소_안산시편



KBS뉴스 1월 7일
고려대 의료분야 교육 '안산캠퍼스' 건립 협약



MBN뉴스 12월 30일
온가족 이음 프로젝트



한빛방송 1월 7일
신년기자회견 열려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 3차(부스터) 접종이 필요한 이유!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접종효과 감소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